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사구 공향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3년 10월 1일 (제1221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홍우걸럼

배워라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의 기능 중 몇 가지나 사용하고 있는가? 최신형으로 고가의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서 설마 전화나 하고 유튜브나 보고, 문자나 날리는 정도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느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이 핸드폰의 기능 중 15% 이하의 기능만을 사용한다. 무슨 기능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왜 모를까? 알려고 하지 않아서다. 배우려고 하지 않아서다. 어떤 사람은 그 기능들을 개발하기도 하는데, 만들어놓은 기능도 쓰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가끔 장로들하고 카페에 가면 당황할 때가 있다. 우리 세대는 종업원에게 주문하는 세대인데, 요즘은 달랑 기계만 있는 경우가 흔하다. 키오스크라는 기계 말이다. 카드를 들고도 찢찢때는 세대가 되어 버렸다. 그러나 몇 번 묻다 보면 알게 된다. 별거 아니다. 20년 안에 기존직업의 47%가 소멸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진화하는 알고리즘(Algorithm)과 데이터 기술이 인간의 지식을 대체하기 때문이다. 심각한 말이다. 그래서 지금 배워야 한다. 지금 열심히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는 일자리도 없게 됨은 물론이고, 눈뜬장님이 되고 말 것이다.

늙었다고 세상이 봐주지 않는다. 퇴물 취급할 뿐이다. 여자라고? 여자도 군대 가라는 세상이다. 무조건 배워야 한다. 안 배워서 모르고, 못하는 것이지 배우면 다 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지금의 안이한 생각, 현재 낡은 방식의 기술과 사고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성경은 큰 사람이 되는 조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신4:6).

‘지혜와 지식’, 두 날개를 달아야 한다.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여 얻지만(약1:5), 지식은 내가 습득하는 것이다. 배우고 노력해서 내가 얻어야 한다. 제발 배우는데 게으르지 마라. 세상이 급변하고 있음을 직시하라.

네가 서 있는 땅부터 기름지게 하라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심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잠22:29). 15년의 해외선교 역사 가운데 목사님은 많은 지도급 인사들을 만나셨다. 시장, 주지사, 대통령 등. 특히 파나마 집회와 코스타리카 집회에 갔을 때 집회를 마친 후, 대통령궁에 들어가 목사님이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에 동행한 경험이 있다. 그때 떠오른 말씀이 이 잠언 22장 29절이다. ‘아, 목사님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에 항상 최선을 다해 일하시니 이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역으로 생각해보면 국사(國事)로 바쁜 그들이 먼 동양 나라에서 온 개신교 목회자

것이라 생각했다.

목사님은 예수를 만난 이후 타협 없는 신앙을 굳건히 지키시며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일에 전심을 기울여오셨다. 작사하신 찬송처럼, ‘어떡하면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떡하면 더 주님을 자랑할 수 있을까’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마다하지 않으셨다. 스스로 ‘편안하기를 거부했다’ 말씀하지 않던가. 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꿈과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이다. 세상에서도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시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요!”라고 외치신다 하지 않던가. “충성

열 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심판하리라”(마19:28).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전 삶을 맡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근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손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그래서 목사님은 대사(大事)가 앞에 놓이면 더욱 몸을 불사르며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하신다. 지난 하계 산상집회에서도 두 주 연속 하루 두 번씩 설교하시며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주군이 맡긴 사명에 부도내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2015년 코스타리카 집회 후 코스타리카 대통령 관저에서

를 굳이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려 하는 이 유가 무얼까 싶었다. 그렇다고 그들이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물론 여기에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위상도 작용했겠고, 목사님이 그동안 중남미에서 지속해온 사역에서 능력 있는 종이란 소문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었겠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잠언 22장 29절 말씀처럼, 목사님이 40년 가까이 오로지 예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오신 결과라는 점이다.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를 닮기 원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았기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뇨”(마24:45).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묵히 철학으로 삼고 오늘을 마지막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신다 말씀하지 않던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눅16:10).

그리고 그 모든 일의 결국은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님과 한 상에 앉아 열두 지파를 심판하는 왕권을 바라봄 아닌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70대 중반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지구 반대편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 것이다.

남의 일에 이러쿵저러쿵 감내라, 대추내라 하지 말고,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 내가 서 있는 땅부터 기름지게 하자. 우리 각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근심하게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공중에 나는 새와 땅의 들풀조차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 삶을 책임지신다. 서울 교회 성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멋진 것으로 예비하신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서울 성전 건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합시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시2:1~12))

나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유럽을 가서 보니 교회가 박물관이 되고, 혹은 관광지로, 심지어는 레스토랑이나 술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유럽인들에게 종교를 물어보면 열에 아홉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는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열에 서넛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우리나라도 교회가 넘쳐나고 왕성한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대대로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도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에만 교회에 나가면서도 당당히 크리스천이라고 믿는 거지요.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그들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무늬만 크리스천이요, 짝퉁 크리스천입니다(딤후3:5).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참 크리스천, 참 그리스도인은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그들은 자원하여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이란 착고에 채우고, 스스로 예수님의 간섭을 받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압제되고 억압되는 걸까요? 어찌 보면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참아야 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도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8:31~32).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알게 되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키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고전4:6)고 당부했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행복한 노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을, 하나님의 통치를 귀찮아하며 허망한 자유를 찾아보겠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비웃으십니다. 시편 2편에 “우리가 그 댜 것을 꿔고 그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시2:3~4)라고 하였고, 그런 자들에게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시2:12)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

라”(시2:11~12)고 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빌2:12).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뤄지지만, 이 구원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것은 곧 ‘경외(敬畏)한다’는 말씀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심한다’

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을 농담거리, 코믹거리로 삼는 자들이 있습니다.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다니엘서 5장에는 벨사살이란 왕이 나옵니다. 그는 귀인들과 큰 잔치를 하면서 그의 아버지인 느부갓네살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기명에 술을 따라 마셨습니다. 이 기명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여야 할 거룩한 것이었는데 망령되어 행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심히 모독한 것입니다. 그러자 큰 손가락이 나와 벽면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벨사살 왕이 놀라 술객들과 점쟁이를 불러 이를 해석하라고 하나 아무도 그 말과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다니엘을 불러 풀이하니, 그 글씨는 ‘메네 메네 데켈 우바르신’인데, 벨사살이 저울로 비유된 하나님의 기준에 필요한 무게가 극히 부족한 자로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되고 엄중한 심판을 받을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 경고대로 벨사살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를

용납지 않으십니다. 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출20:7). 천사장 루시엘, 트리바 물을 두 번 내리친 모세,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당부 드리고픈 말씀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

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계2:1~5),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데, 정말 열심히 봉사하며 주의 일을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열심히 안내를 서고, 열심히 성가대를 하고, 열심히 조장, 구역장을 하는데 영혼은 말라깽이가 되어버린 자들 말입니다. 그들은 마르다처럼 본질을 잃어버리고 일에만 전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봉사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는 천국이 보장된 후에 받게 되는 상을 위한 것이지요. 그런데 천국에 갈 요소를 잃어버렸으니 그 봉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봉사보다 ‘예배’가 중요하다고, 봉사자보다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배가 시작되면 밖에서 안내서는 자들 다 들어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禮拜)란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대면 예배라고 다리 꼬고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예배 보는 자들, 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설교자 이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가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 하더니 지금 목사도 못하고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때 사회를 보던 어느 장로는 사회를 다 보고 내려가서는 예배는 참석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노닥거리고 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 쫓딱 망해서 야반도주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까먹고 일만 하는 성도, 주의 종들이 있다면 당장 직분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영성이 회복되어야 끝까지 구원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노아가 두렵고 떨림으로 방주를 지었기에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히11:7).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렸을 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창22:12) 하시고, 그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노아가 두렵고 떨림으로 방주를 지었기에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히11:7).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렸을 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창22:12) 하시고, 그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노아에게 그러하셨듯이 오늘날도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 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히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시31:19~20).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그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말3:16~18).

우리, 허울만 좋은 크리스천이 아니라 속까지 짙은 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끝까지 주의 구원을 이룹시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위대한 유산(무엇을 남기고 갈까?)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 영국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100여 명의 침례 교인들이 미지의 땅 미국에 정착했다. 그들의 위대한 신앙 유산이 오늘날 위대한 미국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인류의 조상 첫째 아담은 우리들에게 죄라는 유산을 상속했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이름을 상속하셨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에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던 아말렉 족속 이야기가 나온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방해한 아말렉을 물리치게 하시고, 내가 그들의 후손을 이 지구촌에서 깨끗이 제거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400년 뒤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세우고 첫 번째 사울 왕이 서자 바로 명령하여 출애굽 때 아말렉 족속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을 말씀하며, 가서 그들을 쳐서 남녀노소, 모든 짐승까지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셨다.

그 이후에도 나머지 잔당들을 다윗을 통해 시글락 사건에서 진멸하셨고, 끝내는 모르드개와 에스터를 통해 아말렉 족속인 하만과 그의 종족을 멸하신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그중에 섞여 살고 있는 겐 족속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민족을 도운 민족이라고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빼내어 화를 면케 해주신다.

400년 후에 아말렉 족속의 후손과 겐 족

속들의 후손들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화를 당하거나 구원을 받는 일을 겪었다. 조상들의 실수, 혹은 이스라엘 선대함을 통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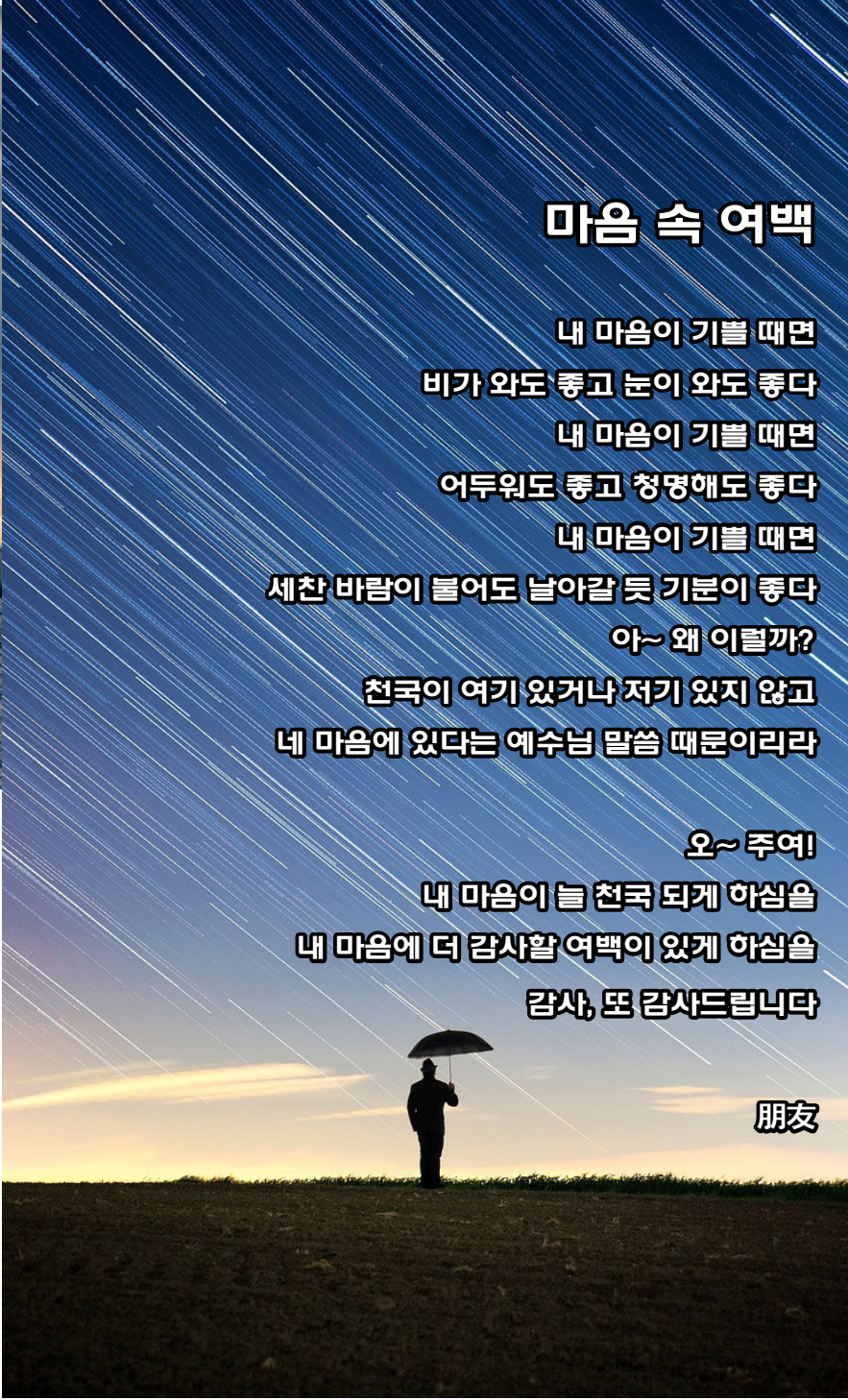
아브라함도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에 이삭을 드림으로 만인의 복이 되는 유산을 남기고 있다. 솔로몬이 죄를 지었을 때, 히스기야가 앗수르에게 포위되어 풍전등화의 위기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신 것이 아니고 다윗을 보시고 솔로몬을 용서하시고, 히스기야를 지키시고 구원하셨다고 증거하고 있다.

우리 민족의 수없는 애국지사들이 우리에게 준 유산과 수없는 순교자의 피가 오늘날 이렇게 풍성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나라를 누리게 하심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든 후손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상속하게 된다. 지금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을 심은 것들이 우리의 아들, 손자, 먼 미래까지 무한한 자산으로 유산을 남길 것이다.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자칫 사탄이나 아담, 가인, 아간, 고라, 발란, 가롯 유다 같은 부끄러운 이름의 유산을 남기 지나 않나 늘 경계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전도서 7장 1절, 눈에 보이는 자산(보배로운 기쁨)보다 무형의 유산(아름다운 이름)을 남기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잠 22:1).

이시대 목사



마음 속 여백

내 마음이 기쁠 때면
비가 와도 좋고 눈이 와도 좋다
내 마음이 기쁠 때면
어두워도 좋고 청명애도 좋다
내 마음이 기쁠 때면
세찬 바람이 불어도 날아갈 듯 기분이 좋다
아~ 왜 이럴까?
천국이 여기 있거나 저기 있지 않고
네 마음에 있다는 예수님 말씀 때문이리라

오~ 주여!
내 마음이 늘 천국 되게 하심을
내 마음에 더 감사할 여백이 있게 하심을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朋友

:: 낮은 울타리 ::

중보기도, 하나님의 사랑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중보기도를 표현한 이 찬양 가사처럼 내가 깊은 어둠과 수렁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누군가의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힘을 얻곤 했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한 지체를 향하고 있는 주님의 시선을 깨닫게 하시며 기도케 하셨다. ‘누가 이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꼬!’ 주님은 상한 심령으로 홀로 힘들어하는 그 지체를 위해 기도할 사람을 찾으셨다. 안타깝게 애통해하시는 주님 마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주님, 부족하지만 저를 썬주세요.”

나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였고, 또 누군가의 기도로 묶였던 소망을 찾았기에 상심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다.

성경에는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움직인 사건들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최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로 조카 롯이 불타는 성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모세도 광야생활 가운데 시시때때

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백성들을 먹이고 입혔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겼을 때도 간절한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막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멸을 피할 수 있었다(출32:1~14).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하여 살아나온 사건 역시 성도들이 모여 베드로를 위해 전적으로 합심기도 했기 때문이다(행12:1~19).

우리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한 목사님과 집회 등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성도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우리가 합심하여 드리는 중보기도의 힘을 믿기 때문이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최악에서 건지기 위해 친히 희생의 어린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이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각 영혼과 가정, 각 교회로부터 생수의 물줄기가 흘러나와 우리 모두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기를 원한다.

이국진 사모

모래 위에 집 짓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마 7:24~27).

누구나 반석 위에 집을 짓길 원할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어야만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을 가질 수 있으니 말입니다. 말씀에 적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열른 잘하고 싶은 마음에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만큼 결과도 좋으니 일하는 것이 즐거웠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언제는 한번 일을 하다 시계를 보니 벌써 수요일에배가 곧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오늘 더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까?’ 사실 일은 예배 끝나고도 할 수 있고, 다음날 더 일찍 일어나서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마음속에 타협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났습니다. 저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인 친언니에게 연락해서 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언니는 제 말을 듣자마자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정아, 왜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해.”

저는 바로 깨달았습니다. 매주 반복해서 들던 설교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일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누구보다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니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말씀을, 타협하지 말라는 말씀을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견고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주 뜻대로 행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더 중요한 일이 닥치면 닥칠수록 더욱더 주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처럼 타협하는 신앙생활은, 학교생활은, 사업은, 직장 생활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음과 행함 모두 드리는 지혜로운 크리스천이 됩시다.

장수정

:: 간증 ::

:: 참빛이 되리라 ::

갑절로 일하고 싶습니다



남들은 평범하게 하는 결혼을 저는 참 힘들게 했습니다. 그것도 남들보다 더 훨씬 늦은 나이인 33세에 두 살 많은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당시에는 결혼을 대개 20대에 했었습니다. 이유는 그저 지금의 미용사 생활이 싫어서였습니다. 현실도피 하는 마음으로 도망가듯이 결혼했는데, 행복은 결혼 문도 열기 전에 날아갔습니다. 남편은 결혼한 다음 날부터 출근도 안 하고 먹고 놀았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형님의 노여움을 사서 회사에서 잘린 상태였는데, 전 그것도 모르고 형님 회사에 다닌다니 그 말을 찰떡같이 믿고 확인도 없이 덤석 결혼한 겁니다.

.....

Good News

인간의 과학으로는 영원히 풀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천지만물이 만들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을 자연(自然)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이란 국어사전에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우주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존재나 상태'라고 뜻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맞고, 다른 하나는 틀렸습니다. 사

신혼의 단꿈은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저는 무능한 남편에게 '헤어지자. 못살아. 이혼해.' 밥 먹듯 말했습니다. 예전엔 먹고사는 걱정을 모르던 내가 '무얼 먹지? 무얼 입지? 어디서 잘까?' 의식주를 고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입버릇처럼 "넌 돈 벌어. 내가 살림할게." 했고, 그 소리가 들기 싫어서 처음엔 집에서 금식하다가 나중에 남편하고 상의 없이 대한민국에서 유명하다는 기도원은 다 다니면서 일주일, 2주일, 길게는 3주일 집을 떠나 금식을 했습니다. 기도원을 가면 천국이지만 막상 집에 오면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을 돈을 벌게 해야겠다 싶어서 기도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그 응답은 참 오래 걸려서 오심을 넘기고서야 변듯한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사이 아들 둘은 천국 가고, 홀로 남은 큰아들은 전기 전문가가 되어 삼성 계열사 회사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지옥을 지나니 천국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셨습니다. 사십에 신학하고, 이제 또 육십의 나이에 신학을 해서 벌써 이학년입니다.

제가 두 번째 신학 오기 전 한 꿈을 꾸었어

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았다는 말은 맞지만, 스스로 존재하거나 저절로 이루어졌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누군가 만든 분이 계시는데 성경을 펼치자마자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니 진화론과 같은 터무니없는 가설이 버젓이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시계를 보지 못한 미개인이 바닷가에서 시계를 발견하고 나서 수십억 년 동안 조개가 파도와 풍화작용에 의해 어느 날 시계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

요. 풍선 두 개가 하늘 높이 오르더니 한 풍선은 옆으로 날다 땅으로 떨어지고, 한 개 풍선은 계속 오르더니 예전에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두바이 폭죽같이 온 하늘을 덮고 장엄하게 터지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두 번째 신학 원서를 접수했고 입학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젊은 동료들 발맞추기가 힘에 부치지만 잘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봉사를 좋아해서 집회 때마다 카페서 커피도 내리고, 에이드도 만 들었습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인 가을, 저의 인생도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저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혼의 열매를 올리고 싶습니다. 부족하고 나이 많아 얼마든지 내치고 떨어 어도 전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신학교에 입학시켜주신 총회장 목사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고마워서 은혜 갚으려 하지만 어디까지 미칠 수 있을지요. 이제 성전도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하는 이 시점에 저도 신학 두 번 한 곱빼기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옥함 생도

습니다. 누군가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우매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섬기고 살아가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니라"(히3:4).

인간이 만든 구조물이나 제품은 불완전하지만, 천체나 인간의 육체가 살아 움직이는 원리는 신비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만 하지 말고 그 분이 만드신 천지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상화평 목사**
a26881009@gmail.com

:: 성경에서 배운다 ::

행복이라는 꼬리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자기 꼬리를 잡겠다고 그 자리를 뱅뱅 돌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고양이가 물었습니다. "넌 왜 꼬리를 잡겠다고 돌고 있냐?" 강아지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저 꼬리가 '행복'이라는 녀석이라. 그래서 꼭 잡아보고 싶었는데 안 잡혀서 너무 너무 힘들어." 강아지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행복의 꼬리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가야 할 길을 똑바로 보고 걸어! 그러면 네 행복이 네 뒤를 계속해서 따라올 테니!"

마냥 웃기엔 이 우화는 사람의 인생과 닮았습니다. 부, 명예와 같은 행복을 향해 끊임없이 제자리를 뱅돌다가 결국 가야 할 길은 가보지도 못하고 지쳐 쓰러지는

허무함 말입니다.

성경은 축복이 우상이 되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 즉 그리스도의 궤도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곧 목적지에 도달하고 행복과 동행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완벽한 환경을 선물 받고, 만물의 이름을 짓는 사명도 잘 감당하던 아담이 세속적인 유혹에 집중하는 순간 에덴의 축복을 빼앗겼던 것을 기억합니다. 권세와 지혜, 물질을 누린 솔로몬이 세상 것은 모두 가져봤으나 결국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다는 고백을 묵상해 봅니다.

왕자라는 신분과 자신만의 정의로 살인을 저지르던 모세의 삶보다 하나님의 부르심 대로 잠잠히 그 음성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삶이 훨씬 빛나고 위

대했으며, 신앙적 학식과 명예로움을 추구하던 바울이 그리스도의 전도자로 변화되었을 때 고된 환경과 상관없이 충만한 기쁨으로 무장되어 복음전파의 사명을 완수하지 않았습니까?

행복이라는 꼬리 때문에 제자리를 뱅돌다 지치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잠시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궤도를 다시금 바라봅시다. 내 삶에 필요한 예수가 아닌, 예수께서 필요로 하시는 내 삶으로 방향을 바꿔 걸을 때, 우리 힘으로 잡고자 했던 행복이 아닌,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따라오는 행복의 꼬리가 우리 곁을 지킬 것입니다!

"여호와와 말씀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시119:2).

하인명 집사
renming@daum.net

기도원 호텔 예약의 비밀

매번 기도원 집회가 열릴 때마다 기도원 호텔 예약은 주요 화두 중 하나이다. 내가 속한 청장년부에서도 매번 많은 관심이 집중된다. 어린 자녀들이 많다 보니 씻기고 먹이고 재우는데 호텔만 한 곳이 없기 때문일 터이다.

호텔 예약이 끝나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예약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궁금했고,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더 자세히 물었다.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손만 빠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었다.

어떤 손 느린 한 분은 호텔 예약을 위해서 한 달을 기도했다고 한다. 그리고 결국 꼭대기 층에 간신히 예약에 성공한다. 다른 한 분은 함께 숙박할 가족이 간절히 원했다고 한다. 예약 성공했다는 말에 그가 울 것처럼 기뻐했다는 걸 들었으니 말이다. 또 다른 분은 집회 처음부터 집회 끝날 때까지 머물다 가려고 걱정하고 온 사람이었다. 그런 분이 예약에 성공하기도 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화면이 열리지 않아서 안 되고, 실수하다 늦어져서 안 되고, 생각지 않은 문제로 예약에 실패하기도 했다. 손이 빠른 사람도 안 될 때가 허다하다. 이를 보고 생각했다. '아! 천사가 움직이는구나. 이번엔 뭘만한 사람이 꼭 되도록 누군가가 실수하거나 작동이 안 되도록 전산을 통제하는구나.'라고 말이다. 물론 예약을 성공시키려는 나의 노력도 꼭 필요하다.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기도만 한다고 될 것은 당연히 아니다. 손 빠른 가족 도움을 받거나 남들보다 빠르게 할 방법을 찾는 노력도 필요한 법이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과 기도, 그리고 우리의 적절한 노력을 하나님이 보시고, 수많은 예약지원자 중 가장 당첨돼야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임을 더욱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장명훈 집사
jjoshua@hanmail.net

JC 아카데미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노량진 교육관)
문의 02. 533. 9191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